

朝鮮時代 儒教思想과 儀禮服研究

— 男子 袍를 中心으로 —

淑明女大 衣類學科
副教授 李 善 宰

目 次	
I. 序 論	3. 陰陽五行 思想과 服飾
1. 研究의 目的	4. 儒家服飾과 思想的 要素
2. 研究方法 및 範圍	5. 朝鮮時代 四禮服의 儒教的 要素
II. 本 論	IV. 結 論
1. 朝鮮時代의 儒教思想	參考文獻
2. 儒教思想과 服飾禁制	ABSTRACT

I. 序 論

1. 研究目的

服飾은 總體的인 文化의 한 要素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時代, 한 地域의 服飾은 特殊한 의미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服飾形態의 1차적인 要素는 自然的 環境, 즉 지역적인 特性이 된다. 기후, 풍토 등이 服飾에 絶對的인 影響力을 行事하게 됨은 自然的인 歸結이다. 2차적인 要素는 각 民族을 구분지을 수 있는 民族性, 즉 그 本然에 깔려 있는 本性的인 要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차적인 要素는 儀式의 問題라고 생각된다. 日常生活과 儀禮的인 行事に 있어 着用하는 服飾이 같을 수 없다. 이는 儀禮를 어떠한 比重을 두고 다루고 있느냐가 問題로 제기된다. 또 여기에 封建社會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統治者의 社會理念的인 問題에서 身分別 相異한 服飾制度를 必要로 하게 된다.

이상 몇가지 요인들은 한 國家, 한 時代의 服飾文化를 創出하게 되는 基本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服飾을 研究하는 立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을 服飾을 하나의 文化現狀으로 파악하는 基本的 시각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個別的인 文化現狀 속에서 史的인 問題를 언급하게 될 境遇, 變化樣相이 수반되게 되며, 그 變化 혹은 變形의

이면에는 반드시 社會現狀, 더욱 압축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社會內部에 底流하고 있는 삶의 指向性과 無關하지 않다.

특히 封建的 社會秩序가 維持되고 있던 社會에서는 個別的 自我認識의 擴大보다는 社會全體의 氣流가 服飾의 變化에 크게 作用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變化의 振幅이 크지 못하고 그 時間性에 있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必要로 하게 된다.

이러한 社會的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本研究는 朝鮮時代 男子의 禮服을 中心으로 그 類型을 攷究하는 한편 服飾의 着用樣相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데서 出發한다. 나아가 그 變化의 이면에는 어떠한 要素들이 作用하게 되는가를 探求한다. 이러한 一連의 作業들은 朝鮮時代라고 하는 社會的 背景을 基本 축으로 하여 그 時代的 狀況을 反影함으로써 服飾이 지니는 意義를 규명하는 한 節次가 될 것이며, 服飾이 單純한 外形的 要素로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相 혹은 統治理念이 내재한 가운데 變化의 樣相을 띠게 된다는 또 다른 側面을 確認하고, 그 變化의 裏面에 貯류하고 있는 思想的인 要因이 服飾의 구성요소와 着用樣相에 어떻게 作用했는가를 규명해 보는데 目的이 있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服飾의 실상을 探究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研究方法는 文獻的인 研究方法에 實物을 통한 現象的 方法이 調和를 이룰 때 보다 明確한 實相에 近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服飾이 가지는 특수성은 이를 許諾하는 境遇가 드물고 文獻的인 方法에 依存하는 境遇가 많다. 多幸히 一部에 限定되기는 하나 그 構成要素들이 繪畫나 副葬品으로 현존하는 境遇도 있어, 이러한 弱點을 補完해 주기도 하나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러한 까닭에 本稿에서도 위의 現實的 모순을 克服하지 못하고 文獻的인 方法을 濫용하여 論述의 주로 삼고 最大限 補助資料를 參考하여 이를 뒷받침 하려고 努力하였다. 이러한 研究方法는 선행 연구자들이 服飾史 또는 개별논문을 執筆할 때 使用하였던 傳統的인 方法이라고 할 수 있겠다. 本 研究에서는 그 시대상을 파악하기 爲한 方法으로 思想史的인 흐름에 注目하고 服飾資料를 整理하였다.

類型을 추출해 내는 作業에 있어서는 儒敎라는 朝鮮朝의 現實的 統治理念을 전제로 하여 王, 士人, 庶人이라는 身分的 分類에 1차적 基準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다시 禮服에 초점을 두었다. 禮服에 重點을 두어 局限한 까닭은 주로 朝鮮時代의 服飾論議가 禮服에 關한 것이 主流를 이루어 資料的 確認이 容易하다는 점도 있겠으나 한편 이 점은, 立身揚名의 현실적 問題를 主안점으로 삼고 있는 朝鮮社會의 당연한 歸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상의 類型에 關한 分類는 現象론적인 問題에 초점이 놓인다. 이러한 服飾의 類型 속에 投影된 思想性은 어떠한 樣相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이 本稿의 두번째 關心事이다.

朝鮮時代의 思想史的 潮流는 高麗 말엽 安珦(1243~1306)에 의하여 導入된 후 朝鮮의 國是가 되었던 儒敎思想을 主軸으로, 佛敎·道敎·實學 및 土俗信仰을 여기에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佛敎와 道敎는 宗教性이 強하여 宗教服飾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며, 土俗信仰은 주로 巫服에 影響을 주어 특수 신분층에 局限되므로 논외로 하였다.

또한 기예인의 服飾들도 한 部類로 잡을 수 있겠으나 앞의 巫服과 같은 立場에서 除外하였다.

그러므로 思想性의 投影與否는 儒敎思想이 主流를 이루며, 여기에 陰陽五行思想과 服色制度, 紋樣에 내포된 思想과 象徵性 등도 함께 다루어야 할 性質의 것이라고 생각되어 包含시킨다.

II. 本 論

1. 朝鮮時代의 儒敎思想

朝鮮은 朱子學 위주의 思想的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朱子學을 바탕으로 하는 儒敎의 통치양식은 '德治主義' 또는 '禮治主義'의 사고로 '天人合一思想' 혹은 '天人關聯說'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社會와 天道가 합치되는 가장 이상적인 社會를 이루어야 한다는 正名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正名思想은 儒敎의 名分論的 思考의 기초가 되어 그 실천덕목으로 禮思想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儀禮服飾文化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朝鮮時代의 主류를 이룬 儒敎思想은 朝鮮朝 文化樣式에도 많은 影響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服飾資料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朱子家禮」, 「四禮便覽」, 「三綱行實圖」, 「國朝五禮儀」, 「王朝實錄」 등의 편찬사업과 서화의 발달은 服飾史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2. 儒敎思想과 服飾禁制

服飾에 반영된 儒敎思想의 구체적 표현은 儒家服과 四禮服에서 쉽게 찾아지는데 이들 복식에 服飾禁制가 내려지게 된 社會的 背景과 禁制의 動因 및 樣相은 크게 身分階層的, 奢侈規制的, 中國에 대한 事大的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陰陽五行思想과 服飾

四禮服飾과 儒家服飾을 儒敎思想과의 關係속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 볼 때 이들 복식에 나타난 紋樣의 象徵性과 陰陽五行思想, 服色禁制 등은 儒敎思想이 지배적이었던 朝鮮이라고 하는 특정시대의 服飾樣相을 整理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4. 儒家服飾과 思想的 要素

儒者들이 착용하였던 深衣, 青袴이나 襪衫, 道袍

등과 같은 儒家服飾에는 儒敎의 理念이나 哲學的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深衣는 王으로부터 士庶人에 이르기까지 冠·婚·喪·祭禮 등 그 착용 범위가 매우 넓었다. 이들 복식의 종류와 구성에 따른 착용양상과 변천과정을 유교사상과 관련시켜 고찰한다.

5. 朝鮮時代 四禮服의 儒敎的 要素

朝鮮時代의 儒敎思想과 儒家服 및 四禮服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始源을 갖게 된다. 四禮, 즉 冠·婚·喪·祭禮의 유래와 의의를 살펴볼 때, 儀式節次에 따른 禮服의 着用樣相과 儒敎思想과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Ⅲ. 結 論

이상에서 朝鮮時代 男子禮服의 類型的 전개과정이나 着用樣相을 살펴봄과 아울러 服飾에 투영된 思想性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作業은 服飾 그 自體를 文化의 한 現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出發한 것이다. 여기에는 服飾의 類型을 비롯하여 裝飾的인 要素 및 變形過程, 色彩 등을 비롯하여 服飾政策에 이르기까지 時代를 底流하고 있는 意識的 指向性이 게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生成과 變形의 논리는 餘他的 文化現狀에도 同一하게 作用하고 있지만 可視的으로 접할 수 있다는 環境的 要素를 服飾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重要性이 큰 것이다.

朝鮮朝는 그 어느 시대보다 禮를 중시하였던 시대였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禮服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시대보다 服飾에 관한 논란이 심했던 시기이다.

朝鮮朝의 남자 禮服은 人間의 一生을 通하여 가장 큰 행사인 四禮儀式에 착용했던 四禮服이 중심이 된다. 특히 禮服으로는 물론 儒家服으로도 着用했던 深衣의 비중은 크다고 본다. 그리고 服飾의 思想的 側面으로는 儒敎, 陰陽五行說, 實學思想 등의 영향이 主流를 이루며 여기에 裝飾的 要素로 크게 作用하였던 紋樣의 象徵性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큰 범주 안에서 服飾의 類型과 着用樣相을 추출해 보았다.

儒敎思想은 德治主義를 理想으로 하며, 이러한

思考는 天人合一思想에 基盤을 두고 있다. 이는 소위 天道라고 하는 絶對的 秩序에 人間의 行爲나 社會의 秩序가 宇宙의 絶對的 秩序와 合致될 때 그 社會를 가장 理想的인 社會로 파악한데서 나온 것이다. 또한 명분론적 思考에 기초를 둔 正名思想 또한 社會客體의 위계의식의 具現이라는 側面에서 強調되고 있다. 이렇듯 儒學은 傳統的 社會를 유지해나가고 人間關係를 調和시키는 이른바, 經世倫理를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行動을 規制하는 禮가 크게 作用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는 個人의 獨自性이나 個別性보다는 일정한階層的 支配秩序 속에 안주하는 調和論的 人間觀이나 世界觀이 基本 視覺을 이룬다.

三國時代에 이미 流入된 儒敎는 高麗를 거쳐, 朝鮮中期에 이르면서 國敎의 地位를 確立하고 統治 體制 뿐 아니라 社會全般에 걸쳐, 國民生活를 規範하는 倫理道德을 보급하게 되었다.

宋學의 影響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朱子學은 形而上學的 해석으로 종래의 倫理道德에 새로운 倫理的 根據를 부여함으로써 中世 身分主義的 階層社會秩序를 強化시키게 되었으며, 특히 家禮를 통하여 가정생활에서 지켜야 할 冠婚喪祭의 禮를 가르쳤고 入仕者에게 이를 試驗치게도 하였다.

이처럼 禮를 重要視하는 풍조는 名分主義·形式主義에 치우쳐 個人의 行動을 規制化하는 傾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儒敎의 根本理念과 韓國에의 定着 내지 深化는 文化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으며 服飾에 있어서도 四禮服飾을 비롯하여 服飾着用 및 禁制, 儒家服 등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的 役割을 하게 된다. 本 論文에서는 朝鮮時代 儒敎思想을 中心으로 한 儀禮服에 대하여 朝鮮王朝實錄과 文獻들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1. 조선조에 多方面에 걸쳐 무수하게 내려지는 服飾禁制의 裏面에는 이러한 儒敎的 思想性이 가장 농후하게 나타나 있다. 禁制의 內容을 분석해보면 그 원인이 몇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는데, 그 첫째가 儒家의 正名主義의 반영으로 인한 上下身分 區別의 意識構造이다. 조선조의 法典類인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受敎集錄」 등에 나타난 禁制品目은 衣服을 비롯하여 草笠, 鬚帽, 鞋, 織物, 쓰개류, 지환, 비녀 등에 이르기

가지 多樣한데, 이것은 封建的 社會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服飾禁制로 볼 수 있었다.

둘째는 奢侈規制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시 儒教的 倫理理念과 無關하지 않다. 즉, 儉德 崇尚을 基本 態度로 하는 사치규제의 條項들은 風俗이 敗壞해지면 이는 곧 服飾의 사치를 招來하게 되며, 社會的 紀綱을 回復할 수 있는 方法은 風俗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따른 禁制의 詰目으로 服飾禁制가 시행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는 中國에 대한 事大的 側面이다. 中國의 衣章文物이 流入되어 이를 基本으로 삼고 官服을 華制로 고쳐 服飾制度에 二重的 構造를 이루게 한 점과 이등체감원칙에 의한 관복착용 등은 바로 이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었다.

2. 韓國服飾에 투영된 陰陽五行思想을 언급하였다. 陰陽五行의 思想的 基盤은 服色禁制를 통하여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白色, 灰色, 玉色의 禁制는 음양오행사상에 근거를 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黃色의 禁制는 中國과의 關係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根本的인 原因은 黃色이 갖는 象徵性에서 緣由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個別 服飾에서 陰陽五行思想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冕服, 婚禮服, 색동옷 등을 들 수 있다. 즉, 冕旒冠의 色彩配合는 陰陽과 天地調和의 象徵的 結合體이며 宇宙의 調和를 象徵한다. 또한 章服과 裳의 色彩, 舄襪의 色彩, 혼례복의 色彩의 調和, 색동옷의 五方의 의미 등은 결국 陰陽五行思想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3. 服飾紋樣에 투영된 象徵性과 思想的 要素를 추출해 보기 위하여 章紋에 나타난 12紋樣과 十長生紋, 四君子紋을 살펴보았다. 紋樣은 潛在된 의식을 形象化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檢討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문양의 발생과 기원을 살핀 다음 王家의 冕服에 나타난 章紋을 중심으로 服飾에 사용된 紋樣의 種類와 象徵性을 찾아보았다. 또한 十長生紋과 四君子紋에서는 象徵性과 思想性을 찾아보았다.

4. 儒者들이 입었던 襪衫, 道袍, 深衣 등은 儒教的 理念이나 哲學的 要素들이 介在하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襪衫은 世宗 때 幘頭와 함께 着用케 한 以來 宣祖

때에는 太學生의 服으로 제정된 바도 있는 袍類이다. 衣色은 주로 靑, 玉이 주로 쓰였는데, 國末에는 연두색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緣은 黑色이 主를 이루며 宣祖 때에는 靑色이 쓰이기도 하였다. 그 용도로는 冠禮, 喪禮, 祭禮時에도 着用하였다.

특히 儒者들의 禮服으로, 또한 冠·婚·喪·祭禮에 着用되었던 深衣는 그 착용범위가 넓은 관계로 「禮記」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이래 中國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변증이 深化되었던 服飾이다. 深衣는 秦·漢代에는 天子의 常服에 사용하였고, 魏·晉·南北朝에는 八品이하 百官의 公服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唐代에는 士人계층에서 착용하였다. 宋代에 이르러 朱熹가 家禮에 推舉하여 士大夫家의 冠·婚·喪·祭禮에 착용하였으며 燕居, 交際의 通服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朱子學을 수용한 朝鮮朝의 유학자들이 深衣를 선호하게 된 동기의 하나이다. 또한 深衣는 帖裏, 襪衫, 鶴氅衣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5. 四禮服飾에 投影된 儒教的 影響을 살펴보기 위하여 通過儀禮인 冠·婚·喪·祭로 나누어 각각의 由來와 節次, 그리고 그 節次에 着用하는 服飾을 고찰하는 順序로 展開하였다.

1) 冠禮儀式 속에는 조상숭배의 精神과 禮儀尊重思想을 投影하고 있으며 成人의 象徵인 상투와 관을 쓰게 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아닌 成人으로서의 權利와 責任을 부여하게 되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冠禮에 관한 세부적 事項을 王家의 관례, 文武官의 관례, 士庶人의 관례 등으로 나누어 논의된 사항과 擇日, 宗廟 및 사당에 고하는 儀式, 初加, 再加, 三加, 醮 및 字를 지어주는 儀式 등 그 節次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冠禮服에 관하여는 「國朝五禮儀」·「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된 記錄을 土臺로 王家의 관례복과 班家의 관례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王家의 관례복으로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變形을 보이고 있는데, 「國朝五禮儀」에 初出服으로 時服, 즉 흥배가 없는 黑團領이 主流를 이루나 正祖 때에 이르러 雙髻, 玉簪, 鴉靑直領, 條帶, 空頂幘 등으로 定着을 보게 된다. 또 王世子의 三加服으로는 初加에 翼善冠·龍裳袍, 再加에 遠遊冠·絳紗袍, 三加에 冕旒

冠·袞服을着用하였으며 왕세손은 이보다 한等級 낮았다. 또 王子의 관례복으로는 肅宗朝 延君의 관례시 常服, 公服, 朝服의 순서로着用한 記錄이 보여 注目된다.

그러나 英祖 때에는 서용보의 건의에 따라 王世孫의 冠禮時 초가복으로 道袍를着用한 것으로 보아 朝鮮後期의 한 變化樣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王家의 관례복에 있어서 品階別 差等を 두어 展開되었던 것은 禮儀를 존중하고 이것이 天道를 實踐하여 天人合一을 추구하려 했던 儒敎思想의 根本理念을 그대로 服飾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점이着用服飾에 差等を 두어 身分秩序를 確立하려는 意圖性으로 강하게 表出된 것이라 하겠다.

2) 婚姻이란 二性の 結合이며 百福의 根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傳統的인 婚姻觀이다. 婚禮儀式의 基盤은 고려말 中國에서 導入한 「朱子家禮」에 두고 있다. 이 家禮가 導入되었을 당시에는 士大夫階層에만 施行되었던 것이 朝鮮朝에 들어오면서 漸次 보편화되었고 儒敎的인 思想體系와 더불어 엄격하게 遵行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朝鮮時代 婚俗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절차를 王家와 士庶人으로 區分하여 살펴보았다.

朝鮮朝 王家의 國婚절차는 그 대상에 따라 절차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揀擇이 끝나면 大禮가 行해 지는데, 그중 첫번째인 納采는 世宗 때 제도적인 확립을 보았다. 納徵禮, 告期 등도 調和의 의미를 지닌 절차이다. 冊妃禮는 六禮舉行 중에 하는 경우와, 六禮後에 하는 경우가 있어 통일되지 않았고, 親迎은 世宗 때 廢제화되어 士大夫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와 關聯되는 婚禮服飾들을 身分別로 大별하여 그 構成要素와 特徵들을 찾아보았다. 王家의 嘉禮服에 있어 왕세자는 冕旒冠과 袞服을 納采, 告期, 親迎禮式 때着用하였으며, 品階에 따라 服飾의 종류가 달랐다.

그러나 一般人들도 婚禮日 만큼은 祭왕의 位에서 축하를 받는 形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官服인 團領을着用토록 했으며 陰陽五行思想이 內포된 婚례복은 男·女의 結合이 人倫之大事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喪禮란 亡者를 슬픔으로 전송하는 人間の 마지막 通過儀禮로서 死別하는 애도의 情을 喪服의 形식으로 표출시키는 것이다. <三國志>위지에 지방의 풍속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葬禮의 풍속은 그 연원이 오래지만 朝鮮에 와서는 이것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엄숙하고 禮儀에 합당하게 지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그리하여 親疎遠近에 따른 五服制度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애도의 情을 표시하는 데도 친족관계로 조직된 조직상을 형성하여 따랐는데 喪服輕重과 喪期의 長短으로 差等を 두었다. 이는 바로 유敎적인 形式主義를 대변하는 것으로 당시에 준칙이 되었던 喪服制를 궁중의 喪服制와 士大夫家 喪服制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이는 조상숭배라는 儒敎精神의 外部的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喪服에 있어서는 단을 袷매느냐 袷매지 않느냐, 熟布의 사용여부, 직물의 精粗로 階層的 신분을 나타내었으며 喪服의 특징은 喪中의 슬픔을 上下貴賤으로 輕重을 가릴 수 없다는 관념에서 宮中에서 一般 士家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同一하다는 점이다. 또한 喪期 역시 儒家의 思想이 中心에 흐르는데 本宗, 夫黨, 外黨, 妻黨 및 三父八母, 三殤降服, 出家女 및 本宗降服에 따른 服이 제정되어 있다. 이 喪期에 미친 儒家의 思想은 매우 커서 父系中心思想, 夫婦有別, 敵·庶의 別, 長幼有序, 妻妾의 別, 養子相續, 祖上崇拜, 家系重視思想 등 조선조의 가치관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4) 祭禮는 孝子가 조상에게 행한 人道의 教儀 뿐 아니라 治國의 要素로도 삼았는데 喪禮나 祭禮에서는 물론 冠禮나 婚禮節次에서도 사당에 고하는 祭儀式을 갖는 것은 人間이란 죽어도 살아 있다는 生死觀과 大家族制度의 根本精神인 交系思想이 內포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특히 王家의 祭祀는 국가의 행사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한 일로 가장 엄격하게 집행되었다. 이는 治者인 國王이 위엄을 찾기 위하여 제사를 통해 王家 자신인 人道教儀 뿐만 아니라 神靈의 힘에 의지해서 백성을 威伏시키고 신하들의 마음을 통일시켰기 故로 본다.

王 및 王世子의 祭服, 文무관의 祭服, 士庶人의 祭服 등으로 나누어 그 구성요소를 살펴본 결과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敎이념이 복식에 반영

되면서 변천됨을 알 수 있었다.

王의 祭服으로는 九旒冕, 九章服으로 太祖 4년 10월에 최초의 着用例가 보인다. 王世子는 世宗代에 정착을 보게 되는데, 八旒에 七章服을 着用하였다.

太宗朝에는 朝·祭服을 동일시하여 衣·裳 모두 紅色으로 하기도 하였으며 世宗朝에도 朝·祭服이 통용되기도 하였다. 「經國大典」에서는 朝·祭服의 구성은 차이가 없고, 梁冠의 도금, 衣에 있어서의 材料, 그리고 放心曲領의 有無에 차이를 주고 있다.

文武官의 祭服은 太宗 16년(1416)에 정리되어 朝服과 함께 상정되었는데, 품계별로 梁冠의 梁의 수, 革帶, 佩, 綬의 재료 등에 차등을 두었다. 士庶人의 祭禮時는 초기에 幅巾, 深衣를 착용하였으며 임진왜란 후에는 道袍로 정착됨을 본다. 國末에서 開化期에는 점차 周衣로 대체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四禮服飾에 抗影된 儒教的인 要素로는, 四禮 그 自體가 儒教的인 思考觀念을 바탕으로 成立된 것이기 때문에 儒教的 思想의 影響은 必然的인 것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禮思想을 바탕으로 한 正名主義의 影響이 크게 作用하여 정해진 틀을 克服하지 못하고 服飾의 定型性을 이루게 되는 것은 封建社會의 限界點으로 지적된다.

이상 조선시대의 儀禮服을 통시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본 結果 儀禮服의 始源은 朱子學의 導入에서부터 잡아야 하며, 이것의 體制的 정비는 世宗祖에 이르러 확립된다. 이어 壬辰·丙午 兩亂을 거치는 동안 1차적 와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實學의 導入과 自我의 覺省으로 인하여 儀禮服에 대한 現實的 모순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服飾史의 論議에 있어서 儒教는 根源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유교가 여타의 종교와는 달리 現世的 實踐 倫理를 강조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儒教의 名分論的 思考인 正名思想과 通過儀禮를 극진한 禮로 갖춤으로써 朝鮮時代는 신분계층의 差等과 虛禮虛飾의 문제도 있었지만 天人合一思想에 기반을 두고, 經世倫理를 지닌 禮思想을 重視한 儒教的 倫理理念이 朝鮮王朝라는

특정시기의 독특한 社會相을 성립시켰으며, 따라서 儀禮服을 中心으로 한 服飾文化를 형성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本 研究의 의도는 복고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무릇 지난 時代의 儀禮的인 形式과 節次의 要素들을 오늘에 再現하자는 의도도 아니다. 단지 역사의 흐름이 과거의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先人들이 관념했던 意識과 服飾의 意味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왜 그토록 冠·婚·喪·祭에 儒教的 理念을 부여하면서 禮思想을 重視했는가, 그 精神的 바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服飾文化를 理解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朝鮮朝 男子 禮服의 類型과 着用樣相을 그 時代의 思想史와 결부시켜 조명해 본 本 研究가 우리의 服飾을 研究함에 있어 중요한 資料가 되고, 韓國服飾의 精神史的인 研究方向을 제시하는데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 〈古 書〉
- 姜希孟, 中叔舟 「國朝五禮儀」
 金富軾, 「三國史記」
 金正喜, 「院堂先生全集」
 朴珪壽, 「居家雜服考」
 徐 兢, 「宣和奉史高麗圖經」
 柳馨遠, 「磻溪隨錄」
 尹殷輔 外, 「大典續錄」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肯翊, 「燃黎室記述」
 李德懋, 「青莊館全書」
 李萬運, 「增補文獻備考」
 李 緯, 「四禮便覽」
 李裕元, 「林下筆記」
 李晬光, 「芝峯類說」
 李 翼, 「星湖僊說」
 _____, 「星湖先生文集」
 李 滉, 「退溪全集」
 丁若鏞, 「牧民心書」
 崔 恒外, 「經國大典」
 春秋館編, 「高麗史」

韓百謙, 「久菴貴稿」
 韓元震, 「南塘草稿」
 洪大容, 「湛軒書」
 「深衣考證(坤)」
 「林園十六志」
 「隨書禮儀志」
 「朝鮮王朝實錄」
 「閒靜堂集」
 「古今圖書集成」
 「論語」
 「孟子」
 「明史」
 「釋名」
 「宋史」
 「禮記」
 「朱文公家禮」
 「後漢書」

〈一般書〉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史 II」, 탐구당, 1977.
 琴章泰, 「儒教와 韓國思想」,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金聲均外, 「新社會 100年」, 신병문화사, 1971.
 金英淑·孫敬子, 「韓國服飾圖監」, 예경산업사, 1984.
 金容雲·金容局, 「東洋의 科學과 思想」, 一志社, 1984.
 朴京子, 「韓國服飾論考」, 新丘文化社, 1983.
 社會科學院 歷史研究會 編, 「朝鮮文化史」, 미래사, 1988.
 石宙善, 「衣」,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교문사, 1982.
 柳喚喜, 「朝鮮哲學」, 장원, 1988.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한길사, 1987.
 任東權, 「民俗上으로 본 色彩觀」, 현대문화사.
 任榮子, 「韓國宗教服飾」, 아세아문화사, 1990.
 李丙熹, 「韓國史(古代篇)」, 진단학회.
 張微順, 「韓國의 風俗」上, 문화재관리국, 1970.
 장철수, 「傳統的인 冠婚喪祭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趙寅永, 「四禮便覽跋」, 「(李緯) 四禮便覽」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일지사, 1984.
 崔南善, 「朝鮮常識: 制慶篇」, 동명사, 1948.
 최성수, 「한국민족문화의 연구」, 성문각, 1988.
 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6.
 高光林, 「遠遊冠·絳紗袍에 관한 研究」, 인천교대논문집(제10집), 1975.
 —, 「李朝時代 혼인절차에 관한 연구」, 인천교대논문집 제6집 1971.
 權桂淳, 「李朝服色考」, 효성여자대학교 논문집, 1968.
 金美子, 「개화기 여자복식과 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논문집 제18집, 1989.
 金用淑, 「李朝後期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아세아여성연구, 1962.
 朴聖實, 「李朝時代의 婚姻制度」, 수도여자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1975.
 裴萬實, 「韓國傳統色彩論」, 이대논총, 1986.
 원미량, 「靑色을 통해 본 중국 개념색의 문제」, 공간, 1985.
 孫敬子, 「활옷의 形態와 紋樣에 관한 研究」, 服飾, 1977.
 劉頌玉, 「四禮服飾」, 韓國의 服飾,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李京子, 「朝鮮朝 中·後期 宮中服飾 研究」,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32집, 1978.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논문집, 1982.
 東京大學 中國哲學研究 編, 「中國思想史」, 東京大出版部, 1952.
 西晉一郎·小纓次郎, 「禮의 意義와 構造」, 東京: 傍書房, 1941.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小島祐馬, 「中國思想史」
 王 圻, 「三才圖會」
 王宇青,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印會印行, 1960.
 陳顧遠, 「中國婚姻史」

〈學位論文〉

琴基淑, 「朝鮮時代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金文淑, 「祭禮의 思想과 祭服에 관한 研究」, 성신여

-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金英淑, 「韓國服飾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金仁淑, 「深衣考」,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金燦洙, 「李朝 性理學에 의한 教育主體의 思想」,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朴垚洵, 「朝鮮時代 冠禮의 史的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朴玉連, 「朝鮮時代 婚禮服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梁在悅, 「朝鮮朝 後期 性理學에 있어서의 人物性
 同異論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2.
 吳相鐸, 「時調文學에 나타난 儒敎思想」,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柳永淳, 「朝鮮朝의 儒生服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尹美花, 「縵衣類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李順子, 「襪衫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李順洪, 「韓國의 婚禮儀式에 관한 研究」, 세종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鄭明子, 「五服制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趙庚姬, 「幘頭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81.
 趙槿姬, 「道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86.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ABSTRACT

A study on ceremonial
 costume and Confucianism
 is Chosun Dynasty.
 —Focusing on Men's Po—

Lee, Sun Jae.

This thesis aims at reviewing the wearing aspect and formation of Chosun ceremonial dresses for meal and finding out the thought reflected by them from the standpoint that dresses themselves should be taken as one of the phenomena in culture. That is men's ceremonial costumes and confucian costumes of the royal family and the gentry family in Chosun is reviewed focused on the formation and the wearing aspect of Po, Which is a kind of them. And in the context of the phase of the times. I also considered the thoughts reflected on the clothes such as confucianism, Ying & Yang Theory, and the symbol and the thoughts of patterns in relation to the clothes. Confucian influence was the main force for the Chosun prohibitions for clothes. The major reasons for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were as follows. First, they reflected confucian Chung myoung chooui(the principle that everything should be where it belongs). That is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were used in the means to maintain feudalistic social order, influenced by social rank system.

Second, they reflected confucian ethics in the means to recover social disciplines with the maintenance of traditional customs. This shows well in the restriction of luxurious items in dressing included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Third, they reflectd Chosun's toadysm toward China. With the influx of Chinese style of dressing then government even changed the style of uniforms for public officials into that of Chinese resulting in dual styles of dressing.

Ying & Yan Theory greatly affected the colors of Korean clothes and reflected toadysm toward China, too. The theory was embodied by prohibition of such colors for clothes as white, gray, and jade green.

I reviewed the twelve patterns on Myunpok, Ten-Longivity patterns and Four-Gracious plants patterns in order to analyze the symbolism and thoughts of patterns for clothes.

Nansam, Dopo, and Shimui worn by confucian scholars ensures that those clothes bears confucianism and philosophical factors. As shimui was worn by many people it appears in Chosun scholars' studies and a Chinese book called 「Yeki」.

I reviewed the origin, procession, and ornaments of four ceremonial clothes and tried to find out the confucianism in them.

First, In Kwanrei(the coming-of-age ceremony) remained ancestor worship and respect for manners. The clothes for this ceremony grant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nd adult to the wearer. The royal Kwanreipok had different dresses for each rank. As Samgapok, the crown prince wore Iksunkwan and Konryongpo for the first ritual, Wonryukwan and Kangsapo for the second, and Myunrukwan and Konpok for the third.

The rank of the King's grandson was lower than the crown prince's. This example shows that Chosun people respected manners and thought the basic confucianism "God and people are equal." at the Royal court.

Second, as Honreipok(wedding gown), the crown prince wore Myunrukwan and Konpok for Daereipok, Wonyukwan and Kangsapo for Napjing and Tongwoo, and Iksunkwan and Konryongpo for Chekbinui.

But common people were allowed to wear an official outfit only for wedding in the means of congratulation on the most important day of their life. Wedding gowns which reflected Ying and Yang Theory emphasized the thought that union of a man and a wife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life.

Third, Sangrei(funeral) was the last ritual of a human being to send off the deceased. The

mourning dresses expressed lamentation of the people left behind. Five-Dress-System for each the relative degree of familiarity showed the solemnity and formality, which represented the formality of confucianism and ancestor worship.

I reviewed the mourning dresses by dividing them into royal, Yangban's, and commons. They were featur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only one style for every walk of life. It is construed that anyone in mourning can wear the same clothes since he feels the same way regardless of his social rank.

Fourth, Chereipok(sacrificial rite dresses) had different styles for each social rank. The King wore Myunpok(Kuryumyun and Kujangpok) were recorded to be worn first in the fourth year of King Taecho's ruling. The crown prince wore Palryumyun and Chiljangpok for sacrificial rite dress which was finally settled when King Sejong was in power.

Common people wore Dopo, Shimui for the rite dress in the beginning of the Chosun Era and wore Dopo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conclusion, confucianism played the main role in ceremonial dress system of Chosun and that was because it emphasized the ethics of action in life,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religions. It is true that cause-oriented thoughts and Chung myoung chooui in confucianism drove all ceremonies to extreme manners, discriminating the people who belonged to the lower social rank, and resulting in extremely luxurious life style. However, they also created a unique trend and clothes culture in the Chosun Era.

I wish that this thesis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and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in the future.